

# 기업정보 누출, 경쟁력 상실한다

## 정통부 기업정보보호 안내책자 발간

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'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핸드북'을 제작했다. 핸드북은 △중소기업의 정보화 현황 △개인 정보침해의 유형별 사례 △PC 패스워드 설정 및 공유폴더 제한 △개인정보의 암호화 △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△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(i-PIN)을 비롯한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이용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. 다음은 핸드북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개요 및 정보화현황과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내용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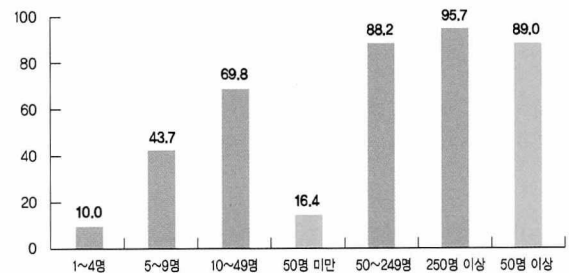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.8%, 고용인력의 86.5%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산업·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『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』에 따라 상시근로자수·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에 따라 업종별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된다.

### 개인정보 측면에서의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

2005년 12월말 기준, 전국의 전체 사업체(315만 5천여 개)중 50명에서 249명 이하인 사업체의 네트워크 구축률은 88.2%로 일정 규모의 사업체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·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내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통이 가능하다. 또한, 종사자수 50명에서 249명 이하인 사업체의 76%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중 상당수가 홈페이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PC보유율 및 직원의 PC 이용률을 살펴봤을 때, 종사자수 50명에서 249명 이하인 사업체의 PC보유율은 86.1%이며, PC 보유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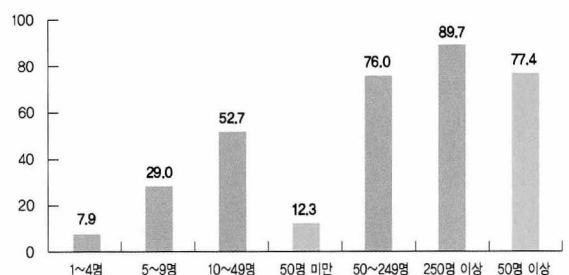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규모별 네트워크 구축률

(단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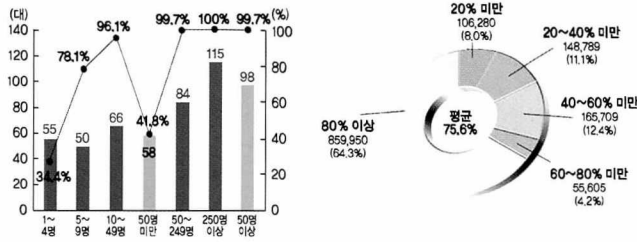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2〉 규모별 홈페이지 보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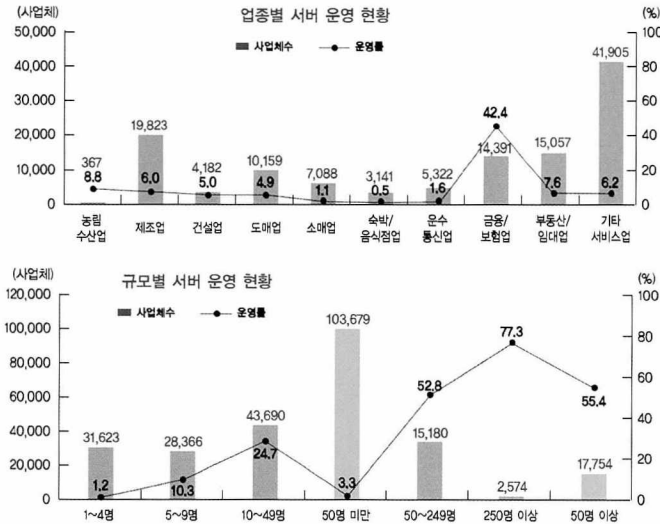
(단위 %)



〈그림 3〉 규모별 PC 보유 현황 및 직원의 PC 이용률



〈그림 4〉 규모별 / 업종별 서버운영현황



체(133만 6천여 개)중 직원의 평균 PC 이용률은 75.6%였으며, 64.3%가 직원의 80% 이상이 업무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PC를 통한 업무 수행 및 개인정보처리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.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, 종사자수 50명에서 249명 이하인 사업체의 서버 운영률은 52.8%로 나타났으며, 금융 및 보험업의 서버 운영률이 42.4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, CRM 등을 도입하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###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

‘개인정보’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(정보통신망법 제2조)를 뜻한다. 중소기업의 고객관리(CRM)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경영의 필수요소

〈그림 5〉 개인정보의 Lifecycle



가 되었고,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자들도 기업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. 개인의 금융정보, 진료정보, 인사정보 등 개인정보는 단 한번의 잘못된 누출만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며,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경영상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.

### 개인정보보호의 침해유형 및 보호대책

개인정보 침해유형은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 2007.1.26 법률 제8289호)」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, 저장 및 관리, 이용 및 제공, 파기 등의 개인정보 Lifecycle에 따라 발생된다.

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상담·피해 구제접수 현황을 살펴 보면 개인정보의 침해유형별 건수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부문은 ‘타인정보의 훼손·침해·도용’이다. ↻